

KMI 주간해운시장 포커스

발 간 일 2023년 2월 13일
감 수 고병욱 해운연구본부장

발 행 인 김종덕 원장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주간뉴스	01	건화물선	04	컨테이너선	15
탱커선	17	중고선	21	주요 해운지표	23

- 건화물선** 케이프선 운임 약세 지속, 더딘 회복세를 보이는 중국의 철강 수요, 3월 재개 예정인 '기니 시만두 프로젝트'
- 컨테이너선** '컨' 운임지수(SCFI)는 전주 대비 11.7p 하락한 995.2p를 기록하며 1,000p 아래로 떨어짐
- 탱커선** 유조선 운임지수(WS)는 전주 대비 2.7p 상승한 52.0 기록, 중국 원유 수요 회복세와 톤마일 증가 효과로 시황 상승세

황수진 해운시장연구센터 센터장 / zin@kmi.re.kr | 051-797-4635
윤재웅 부연구위원 / jwoong01@kmi.re.kr | 051-797-4633
류희영 연구원 / hyryu@kmi.re.kr | 051-797-4915

최건우 해운금융연구실 실장 / ak8102@kmi.re.kr | 051-797-4638
이상혁 전문연구원 / sanghyeoke@kmi.re.kr | 051-797-4625
김병주 연구원 / bjkim17@kmi.re.kr | 051-797-4628



1. 주간뉴스

탄소배출이 '컨' 선사의 새로운 운영 척도로

- ▶ Xenta에서 '컨' 선사들의 탄소배출지수(CEI, Carbon Emissions Index)를 발표함
 - 아시아-남미 항로를 운항하는 6개 선사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측정한 결과 가장 배출량이 적은 선사는 머스크에 인수된 함부르크 수드(Hamburg Sud)였으며 가장 많이 배출한 선사는 에버그린으로 나타남
 - 동 항로에서 배출하는 탄소배출량 평균은 톤당 96.6으로 나타났으며 함부르크 수드는 76.2, 에버그린은 109.7을 기록함
 - 탄소배출지수를 통해 함부르크 수드가 운송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이 평균 대비 20% 이상 적은 것으로 추정 가능함
- ▶ IMO 규제와 함께 탄소배출량이 선사들의 평가 지표로 자리매김 할 가능성이 높음
 - 선박 크기와 속도에 따라 탄소배출량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이번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남미 항로에 투입된 에버그린 선박의 평균 선속이 8.9% 빠른 것으로 나타남
 - Xeneta는 선박 재원과 AIS 자료를 기반으로 세계 주요 컨테이너항로, 선사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추정해서 발표함에 따라 향후 선사들은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자료 : <https://www.tradewindsnews.com/containerships/evergreen-is-bottom-of-the-class-in-new-carbon-emission-rankings/2-1-1401677>

최건우 부연구위원

051-797-4638, ak8102@kmi.re.kr

MSC, 파나막스급 컨테이너 중고선 추가 구매

- ▶ 알파라이너(Alphaliner)에 따르면 MSC는 16년 된 파나막스급(4,922TEU) 중고선을 비운항선주(Non Operating Owners)로부터 2월 중 인도받을 예정으로 알려짐
 - MSC는 2020년 3분기 이후 적극적으로 중고선시장에 참여하여 총 283척의 중고선을 구매했으며, 이번 구매로 284번째 중고 컨테이너선을 추가할 것으로 보임
 - 로이즈리스트에 따르면 중고선 시장은 2021년 4분기 사상 최고 수준에서 정상화되면서 MSC가 올해도 중고 컨테이너선 구매 활동을 계속 할 것으로 예상함
- ▶ 해운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MSC의 이번 중고선 추가 구매는 선사 운영 전략과 관련하여 장기적인 계획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언급함
 - 또한 MSC는 팬데믹 기간 동안 축적된 상당한 자금을 사용하여 용선 비중을 줄이기 위해 중고선을 추가 구매할 수 있는 좋은 시기에 있다고 덧붙임

자료 : <https://lloydlist.maritimeintelligence.informa.com/LL1143903/MSC-extends-buying-spreed-with-deal-for-Ea-tern-Pacific-boxship>

김병주 연구원

051-797-4628, bjkim17@kmi.re.kr



1. 주간뉴스

인도,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로 러시아산 비료 수입 급증

- ▶ 선박 중개업체인 브레마(Breamar)에 따르면 해상을 통한 러시아산 비료 수출량은 210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7% 증가했으며, 지난해 연간 비료 수출량은 2,030만 톤으로 2021년 대비 18% 증가함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인도의 비료 수입 업체들이 저렴한 러시아산 비료를 선호함에 따라 지난해 인도의 러시아산 비료 수입량은 410만 톤으로 2021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파나마스 및 수프라막스선 수요가 상승했음
 - 올해 1월 인도의 러시아산 비료 수입량은 20.5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상승함. 올해 1월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에서 각각 55만, 36만, 29만 톤의 러시아산 비료를 수입함
- ▶ 러시아 에너지기업 노바텍(Novatek)은 인도의 주요 비료업체인 디팍퍼틸라이저즈앤페트로케미컬즈(Deepak Fertilizers and Petrochemicals Corp.)와 LNG 공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노바텍 CEO인 레오니드 미헬손(Leonid Mikhelson)에 따르면 본 양해각서를 통해 에너지 협력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저탄소 수소 및 암모니아 분야에 관한 합동 프로젝트가 지역 경제 발전과 환경 및 기후 문제 해결에 일조할 것으로 내다봄
 - 발트국제해운협의회(BIMCO)에 따르면 전년 인도의 밀 생산량은 1억 1,200만 톤으로 기록적인 풍작을 기록했으나, 2021년 가뭄으로 발생한 재고량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상당량이 자국 내에서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인도의 밀 수출량 증가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함

자료: <https://loydlist.maritimeintelligence.informa.com/LL1143907/Russian-fertiliser-exports-to-India-boosted-by-bilateral-ties>

이상혁 전문연구원

051-797-4625 sanghyeoke@kmi.re.kr

아시아 국가, 주요 석탄 수입국으로

- ▶ 유럽의 석탄 수입량 감소와 더불어 호주의 열차탈선과 폭우 및 홍수로 인한 석탄 공급량 부족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및 남아프리카산 석탄 수출량이 증가했으며, 이 중 상당량이 인도로 수입되었음
 - 애로우쉽브로킹(Arrow Shipbroking)의 버락 세티녹(Burak Cetinok)에 따르면 유럽의 온화한 날씨와 더불어 가스 가격 하락으로 인한 비축량 증가로 유럽의 석탄 수입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전년 인도의 석탄 수입량이 2억 400만 톤으로 전년 대비 2,500만 톤 증가했음. 인도네시아산, 석탄이 인도의 석탄 수입량의 약 43%를 차지하며, 호주산과 러시아산 석탄의 수입량이 각각 26%, 9%를 차지함
 - 인도의 충분치 않은 석탄 비축량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 석탄 수입이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철강 생산량 역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 노르웨이 해운그룹 토발트(Torvald Klaveness)의 피터 린드스트롬(Peter Lindström)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석탄 수입량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아시아의 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분석함. 특히 중국의 호주산 석탄 수입이 향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유럽의 러시아산 석탄 수입이 감소하는 반면 튀르키예, 인도, 중국으로의 수입이 증가하는 등 석탄 무역 구조 재편으로 인한 톤-마일 증가가 예상됨

자료: <https://loydlist.maritimeintelligence.informa.com/LL1143879/Asia-to-drive-coal-import-demand>

이상혁 전문연구원

051-797-4625 sanghyeoke@kmi.re.kr



1. 주간뉴스

러시아, 다음 달부터 하루 50만 배럴씩 원유 감산 예고

- ▶ 러시아가 자국산 석유제품에 가격 상한제를 시행한 서방 국가들에 대응하기 위해 내달부터 하루 50만 배럴씩 석유 감산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함
 - 지난 10일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는 언론을 통해 "3월부터 하루 50만 배럴씩 원유 생산을 줄일 계획이며, 가격 상한제를 따르는 모든 국가에게 원유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언급함
 - 이는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경제 제재의 일환으로 원유 가격 상한제 및 석유제품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자 그에 대응하기 위한 러시아의 조치로 해석됨
- ▶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원유 감산 조치 발표에 대해 "에너지 무기화"라고 비판함
 - 미국 존 커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브리핑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에너지 자원을 무기로 사용하는 것에 전혀 주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공표함
 - 또한 "우리는 여전히 러시아가 원유 판매를 통해 전쟁 자금을 조달하도록 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해온 대로 에너지의 수급 균형을 더 잘 유지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힘

자료: <https://apnews.com/article/russia-ukraine-business-65edbc5ba28370c0face621b7db0ce74>

류희영 연구원

051-797-4634, hyryu@kmi.re.kr

중국 국영 정유사, 러시아산 원유 수입 지속 확대

- ▶ 중국의 대형 국영 정유사들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음
 - 중국의 제3자 제제(secondary boycott) 우려가 줄고 더 저렴한 가격에 많은 원유를 확보할 수 있어 페트로차이나, 시노펙, CNOOC(중국해양석유) 등이 수입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근 페트로차이나, CNOOC가 해상을 통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재개했으며. 러시아산 원유를 선적한 VLCC 3척이 중국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 블룸버그는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은 올 들어 하루 최대 50만 배럴 증가한 220만 배럴이 될 수 있으며, 전략유 비축량 보충을 위한 추가 수입 시 하루 최대 250만 배럴이 될 것이라고 파악함
 -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 의하면 작년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8천760만톤, 러시아에서 7천960만톤의 원유를 각각 수입함
 - 특히 중국은 미국, EU 등이 대러 제재에 나서자 러시아가 신규 원유 수출국 개척을 위해 할인된 가격으로 자국산 에너지를 판매하자 원유 수입량을 확대하면서 큰 경제적 이익을 획득함

자료: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02-09/china-s-state-refiners-buy-more-russian-oil-energy-aspects-says>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02-09/china-s-state-refiners-buy-more-russian-oil-energy-aspects-says>

류희영 연구원

051-797-4634, hyryu@kmi.re.kr



2. 건화물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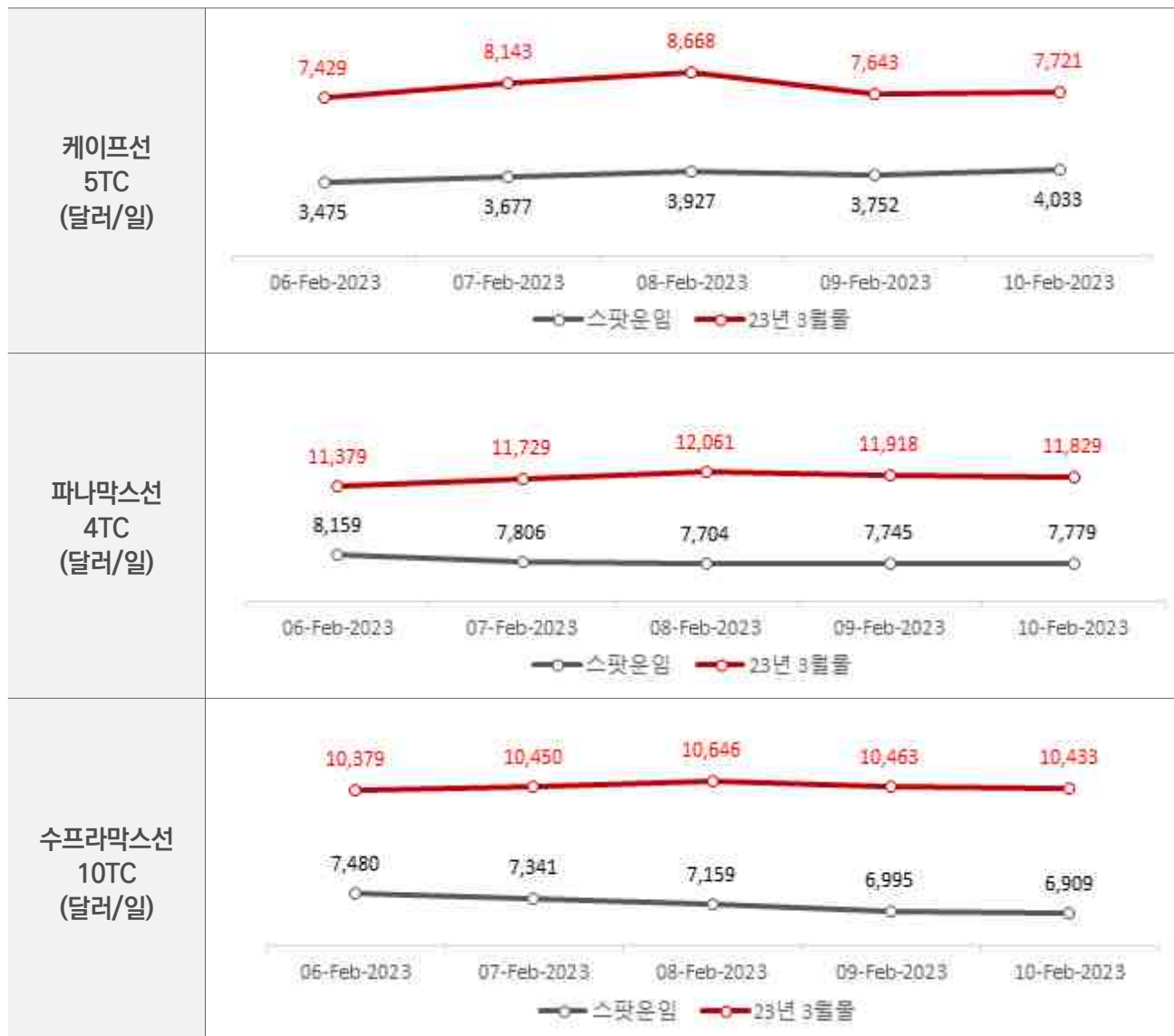
황수진 전문연구원 | zin@kmi.re.kr | 051-797-4635

1 주간평균운임

구분	2월 2주					
	주간평균운임	전주대비차이	3월물 FFA 주간평균가격		전주 대비 차이	
케이프선 5TC (달러/일)	3,773	▼ -1,426	-27.4 %	7,921	▲ 1,743	28.2 %
파나막스선 5TC (달러/일)	7,839	▼ -1,552	-16.5 %	11,783	▲ 744	6.7 %
수프라막스선 10TC (달러/일)	7,177	▲ 55	0.8 %	10,474	▲ 1,001	10.6 %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KMI

▲ 상승 ▼ 하락 - 혼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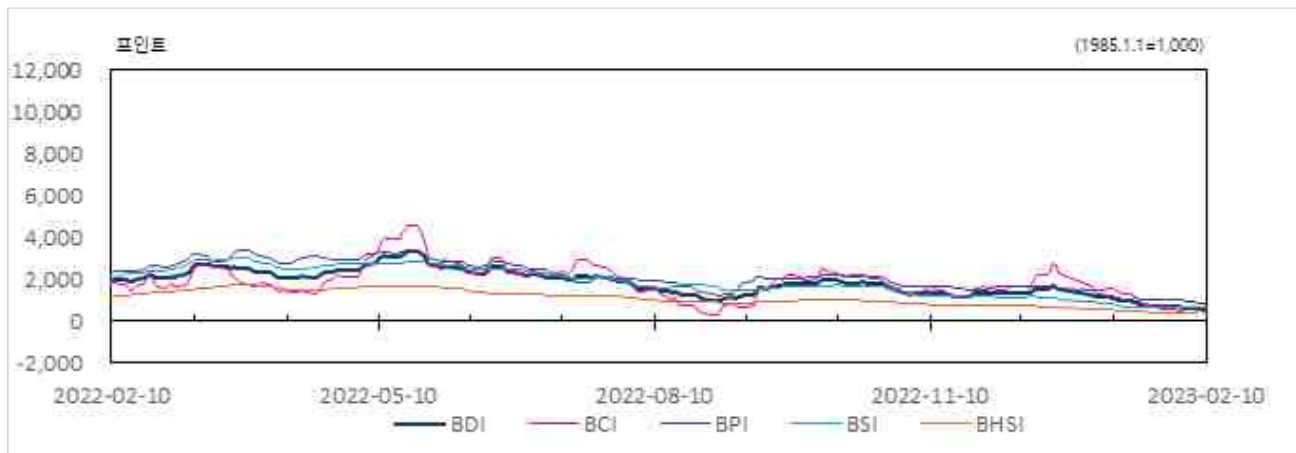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2 시장동향

건화물선 운임지수



자료: Clarkson

건화물선 운임

(운임지수: 포인트, 선형별 운임: 달러/일, 1년 용선료: 달러/일, 선형별 운임 평가치: 달러/일)

		2월 2주	전주대비	2023년			2022년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건화물선 시장(현물) ¹⁾									
운임지수	BDI	601	-57	592	1,250	828	965	3,369	1,934
선형별 운임	케이프(5TC)	3,773	-270	3,475	13,561	7,608	2,505	38,169	16,177
	파나막스(5TC)	7,839	-1,285	7,704	12,944	9,671	10,956	30,746	20,736
	수프라막스(10TC)	7,177	-248	6,909	10,646	7,796	11,685	33,366	22,152
	핸디(7TC)	7,854	31	7,763	11,051	8,536	11,941	32,166	21,337
1년 용선료	케이프	15,000	250	15,875	19,750	17,771	10,125	23,000	16,591
	파나막스	15,500	250	12,500	13,250	12,921	9,625	16,125	12,537
	수프라막스	12,563	-1,063	9,875	10,188	10,021	8,250	12,500	10,356
	핸디	9,750	-250	8,063	8,375	8,281	7,313	9,250	8,435
건화물선 시장(FFA)									
		3월물		2분기물		2023년물		2024년물	
		2월 2주	전주대비	2월 2주	전주대비	2월 2주	전주대비	2월 2주	전주대비
선형별 운임 평가치	케이프(5TC)	7,921	576	13,169	281	15,114	-151	15,679	24
	파나막스(5TC)	11,783	-427	14,238	-404	14,451	-145	14,451	-145
	수프라막스(10TC)	10,474	-526	12,572	-682	13,139	-103	12,887	23
	핸디(7TC)	10,548	-385	12,185	-627	12,628	-133	12,215	-2

주: 운임지수, 선형별 운임, 1년 용선료는 해당 주 평균값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2 시장동향

원자재 가격

(달러/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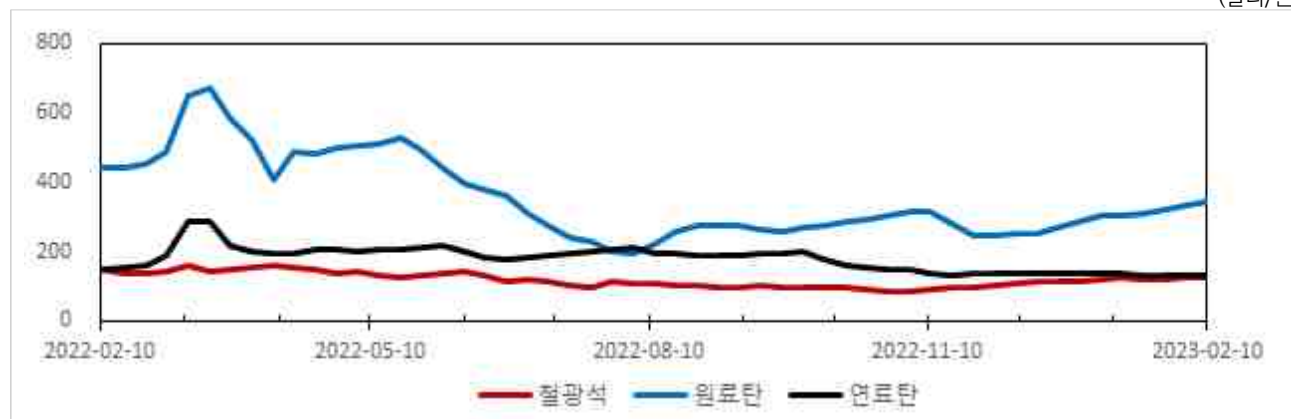
구분	2023년		전주 대비 차이				2022년			
	2월 2주	2월 1주					2월 2주	연평균	최저	최고
철광석	123.7	122.3	▲	1.4	1.1	%	146.8	120.3	82.4	159.8
원료탄	346.5	319.4	▲	27.1	8.5	%	444.7	365.0	196.1	670.1
연료탄	129.5	132.4	▼	-2.9	-2.2	%	144.0	179.1	107.5	288.2
대두	559.8	552.2	▲	7.6	1.4	%	563.1	569.4	503.5	638.0
옥수수	266.3	266.4	▼	-0.1	0.0	%	245.2	273.1	231.6	319.9

자료: Clarkson,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 상승 ▼ 하락 — 혼조

철광석 및 석탄 가격 추세(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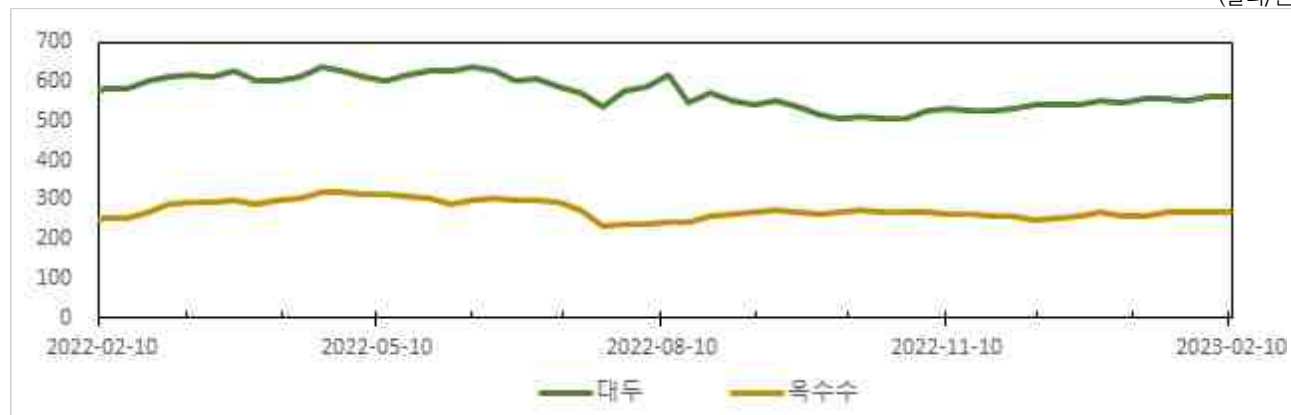
(달러/톤)



자료: Clarkson

곡물가격 추세(주간)

(달러/톤)



자료: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3 케이프선-동향분석

I 케이프선

(운임) 전주(2월 1주) 대비 6.7% 하락한 3,773달러/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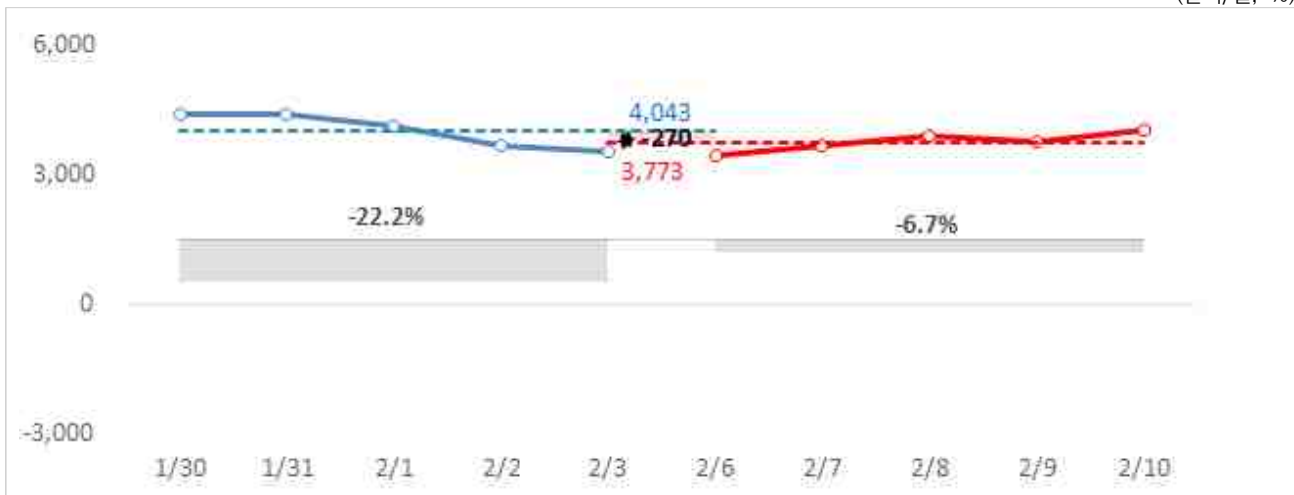
- 최근 운임이 저점에 도달했으며 반등할 가능성이 크나, 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가용선박수 증가로 운임이 제한적인 상승폭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동향) 더딘 회복세를 보이는 중국의 철강 수요, 3월 재개 예정인 '기니 시만두 프로젝트'

- 중국 춘절 연휴 이후에도 시장의 회복이 빠르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 일부 부동산과 관련한 규제가 완화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으나 운임을 큰 폭으로 반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의 의견임
- 다만, 다음 달 3월 4일에 개최 예정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 당국이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정책을 발표하고 동절기 이후 건설 성수기가 도래함에 따라 중국의 철강 수요가 회복할 것으로 예상됨
-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니 정부에 의해 중단된 기니(Guinea) 시만두(Simandou) 철광석 광산 개발 프로젝트가 올해 3월부터 재개될 예정임. 중국이 호주에 대한 철광석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세계 최대 철광석 매립지 중 한 곳인 시만두에서 광산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으며 현재는 작업이 중단됨

최근 평균운임 차이 비교

(달러/일, %)



자료: Clarkson--

케이프선 운임

(BCI: 포인트, 스팟운임, 용선료, FFA: 달러/일)

구분	2월 2주	2월 1주	전주대비차이	
BCI	455	488	▼ -33	-6.7%
스팟운임(5TC)	3,773	4,043	▼ -270	-6.7%
용선료	6개월	12,000	▲ 250	2.1%
	1년	15,000	▲ 250	1.7%
	5년	15,625	- 0	0.0%
FFA	'23년 3월물	7,921	▲ 576	7.8%
	'23년 2분기물	13,169	▲ 281	2.2%
	23년	15,114	▼ -151	-1.0%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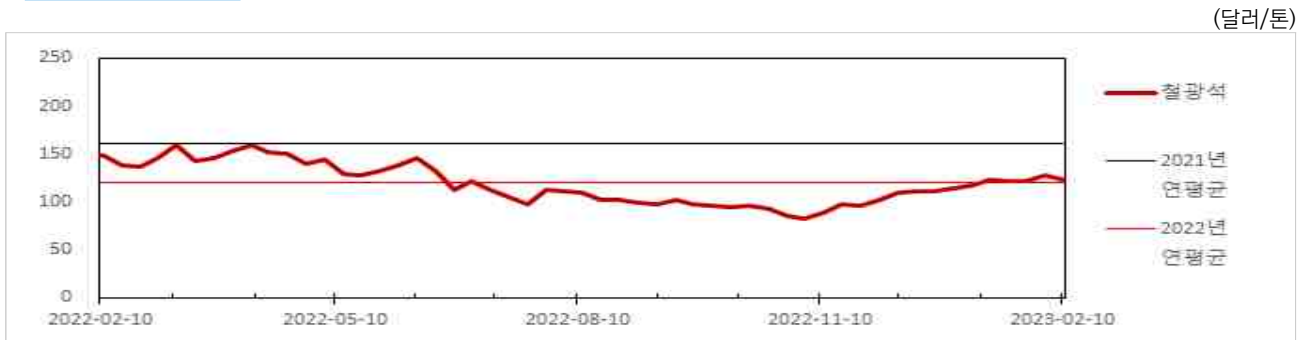
▲ 상승 ▼ 하락 - 혼조



3 케이프선-동향분석

■ 철광석 가격 : 전주 대비 3.1% 하락한 123.7달러/일 기록

철광석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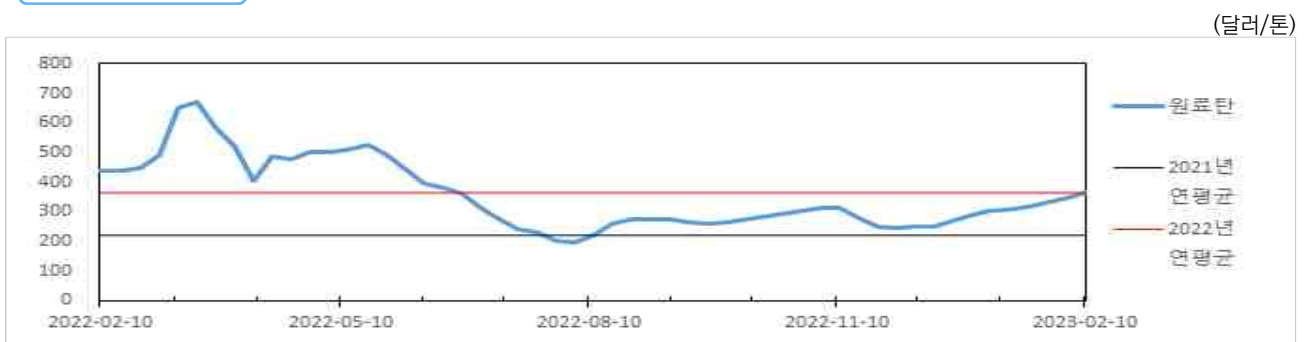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자료: Clarkson

■ 원료탄 가격 : 전주 대비 4.9% 상승한 346.5달러/톤 기록

원료탄 가격 추이



자료: Clark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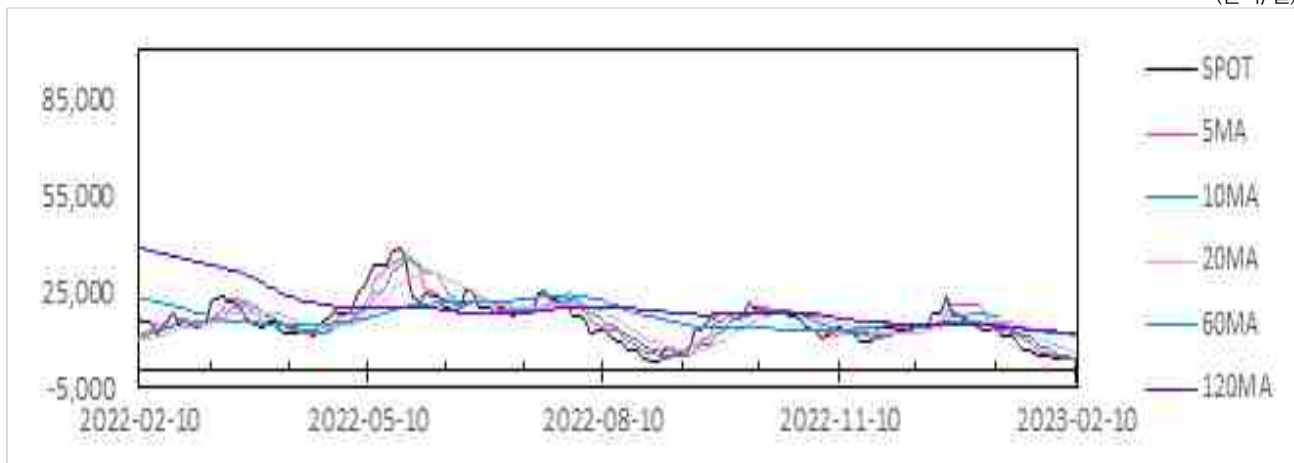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3 케이프선-기술분석

이동평균

(달러/일)



자료: Clarkson, Baltic 자료를 활용해 저자 재가공



3 파나막스선-동향분석

I 파나막스선

(운임) 전주 대비 14.1% 하락한 7,839달러/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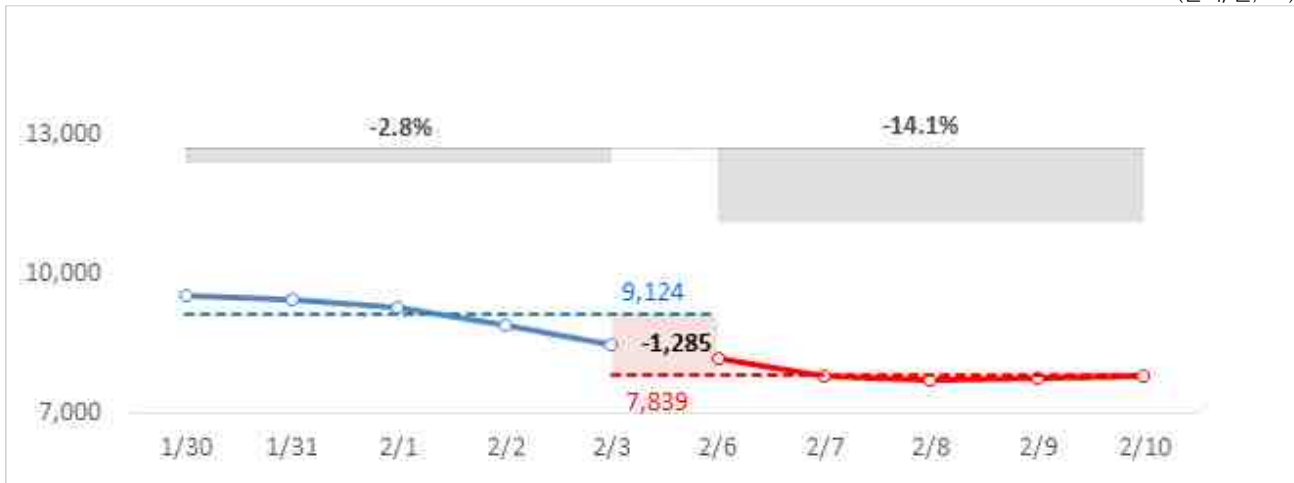
- 시장에 공급된 가용선박수 증가로 운임 약세가 지속되고 있음

(동향) 홍수와 열차 탈선 영향으로 2월 호주 석탄 수출량 감소 전망

- 지난 1월 29일에 발생한 호주의 보웬 분지(Bowen Basin) 탄광과 글래드스톤(Gladstone) 항구를 연결하는 주요 노선인 블랙워터(Black water) 선도에서 열차 탈선 사고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음. 동사고 이후 블랙워터 선도의 운영이 중단되었으며, 2월 12일에 운영이 재개될 예정이었음
- 또한 1월 중순에 지속된 열대 저기압으로 인해 주요 석탄 터미널 헤이포인트(Hay Point), DBCT, 애봇포인트(Abbot Point) 등 운영이 일시 중단되었으며, 이후 체선현상까지 나타나 수출일정에 차질이 발생함

최근 평균운임 차이 비교

(달러/일, %)



자료: Clarkson

파나막스선 운임

(BPI: 포인트, 스팟운임, 용선료, FFA: 달러/일)

구분	2월 2주	2월 1주	전주대비차이		
BPI	871	1,014	▼	-143	-14.1 %
스팟운임(5TC)	7,839	9,124	▼	-1,285	-14.1 %
용선료	6개월	14,975	▲	150	1.0 %
	1년	15,500	▲	250	1.6 %
	5년	13,800	▲	75	0.5 %
FFA	'23년 3월물	11,783	▼	-427	-3.5 %
	'23년 2분기물	14,238	▼	-404	-2.8 %
	23년	14,451	▼	-145	-1.0 %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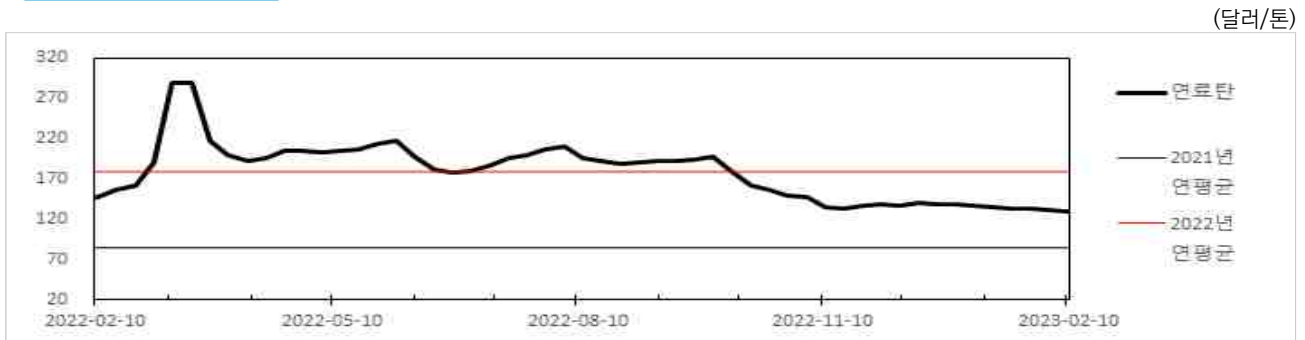
▲ 상승 ▼ 하락 - 혼조



3 파나막스선-동향분석

연료탄 가격 : 전주 대비 0.9% 하락한 129.5달러/톤 기록

연료탄 가격 추이



자료: Clark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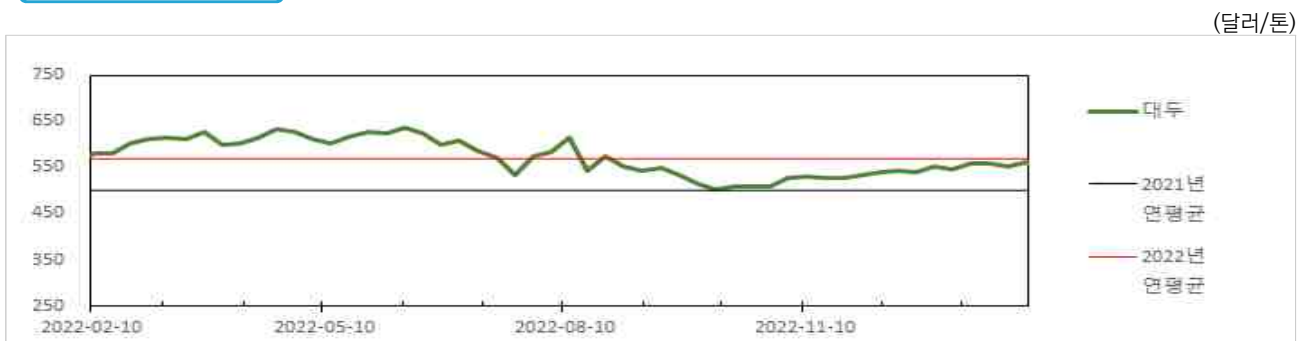
(달러/톤)

구분	연료탄가격	전주대비차이		
1월 3주	133.4	▼ -0.9	-0.7	%
1월 4주	132.4	▼ -1.0	-0.7	%
2월 1주	130.7	▼ -1.7	-1.3	%
2월 2주	129.5	▼ -1.2	-0.9	%

자료: Clarkson

대두 가격 : 전주 대비 0.5% 하락한 559.8달러/톤 기록

대두 가격 추이



자료: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달러/톤)

구분	대두 가격	전주대비차이		
1월 3주	559.0	▲ 0.8	0.1	%
1월 4주	552.2	▼ -6.8	-1.2	%
2월 1주	562.9	▲ 10.7	1.9	%
2월 2주	559.8	▼ -3.1	-0.5	%

자료: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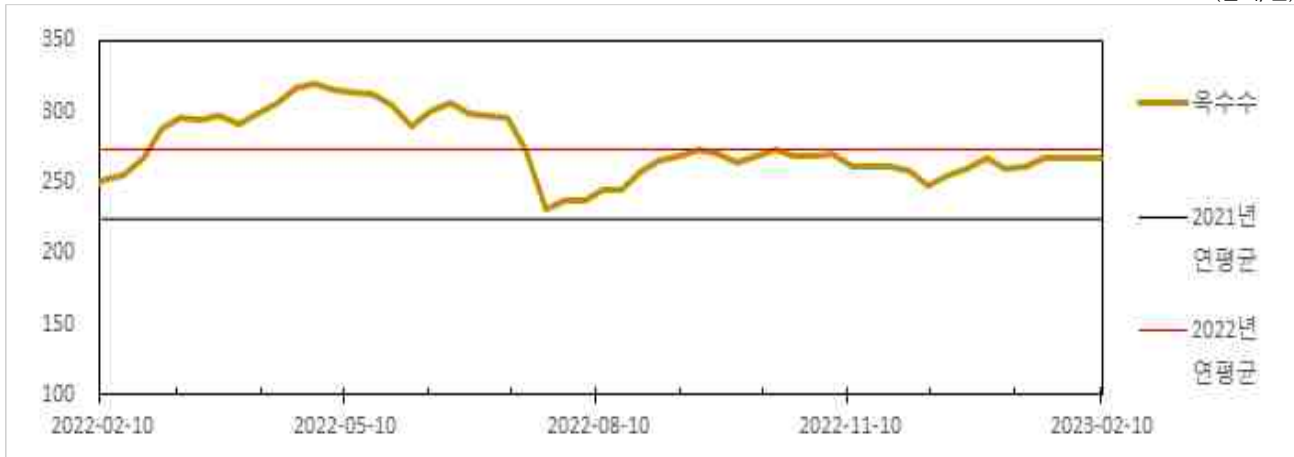


3 파나마스선-동향분석

■ 옥수수 가격 : 전주 대비 0.4% 하락한 266.3달러/톤 기록

옥수수 가격 추이

(달러/톤)



자료: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자료: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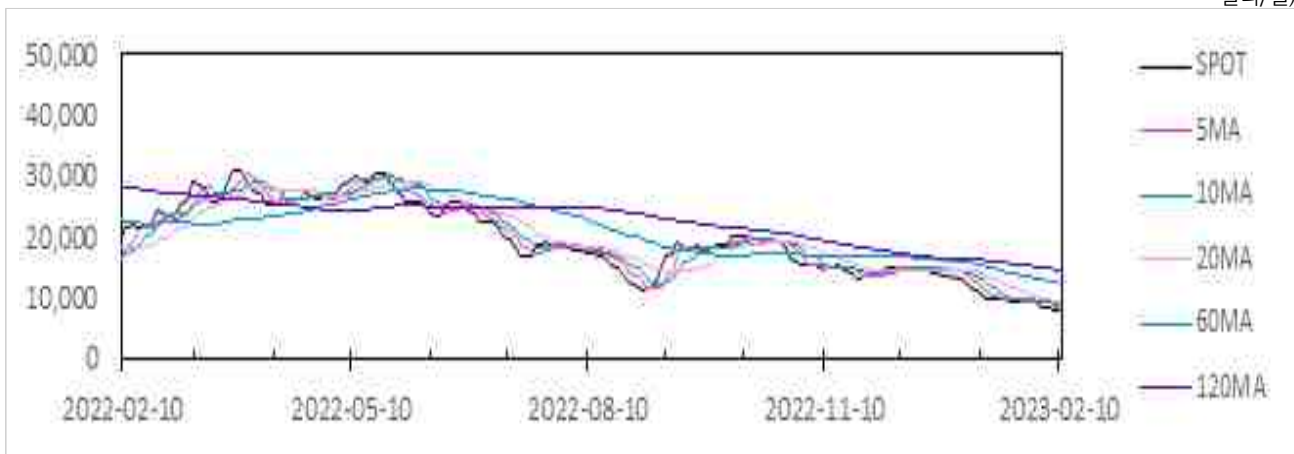
구분	옥수수 가격	전주대비차이		
1월 3주	267.7	▲ 7.1	2.7	%
1월 4주	266.4	▼ -1.3	-0.5	%
2월 1주	267.5	▲ 1.1	0.4	%
2월 2주	266.3	▼ -1.1	-0.4	%

(달러/톤)

3 파나마스선-기술분석

이동평균

달러/일



자료: Clarkson, Baltic 자료를 활용해 저자 재가공



3 수프라막스선-동향분석

I 수프라막스선

(운임) 전주 대비 3.3% 하락한 7,177달러/일 기록

- 가용선박수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데다, 월요일에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운임에 하방압력이 단기적으로 커짐

(동향) 튀르키예에 지진 발생으로 철강 생산에 부정적 영향

- 클락슨에 따르면 튀르키예에 발생한 지진이 수프라막스선 등 소형 선박의 운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임. 튀르키예의 철강과 스크랩 시장 활동이 이번 지진으로 인해 둔화하였기 때문임
-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인해 튀르키예 이스켄데룬(Iskenderun) 항구의 운영이 잠정 중단되었을 뿐 아니라, 동 지역의 제철소 생산 활동도 함께 잠정 중단되었음. 이에 따라 2월 철강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임. 이스켄데룬 지역에 위치한 제철소는 연간 약 1,170만 톤의 철강을 생산함

최근 평균운임 차이 비교

(달러/일, %)



자료: Clarkson

수프라막스선 운임

(BSI: 포인트, 스팟운임, 용선료, FFA: 달러/일)

구분	2월 2주	2월 1주	전주대비차이	
BSI	652	675	▼ -22	-3.3
스팟운임(10TC)	7,177	7,424	▼ -248	-3.3
용선료	6개월	12,000	▼ -375	-3.0
	1년	12,563	▼ -1,063	-7.8
	5년	12,500	-	-
FFA	'23년 3월물	10,474	▼ -526	-4.8
	'23년 2분기물	12,572	▼ -682	-5.1
	23년	13,139	▼ -103	-0.8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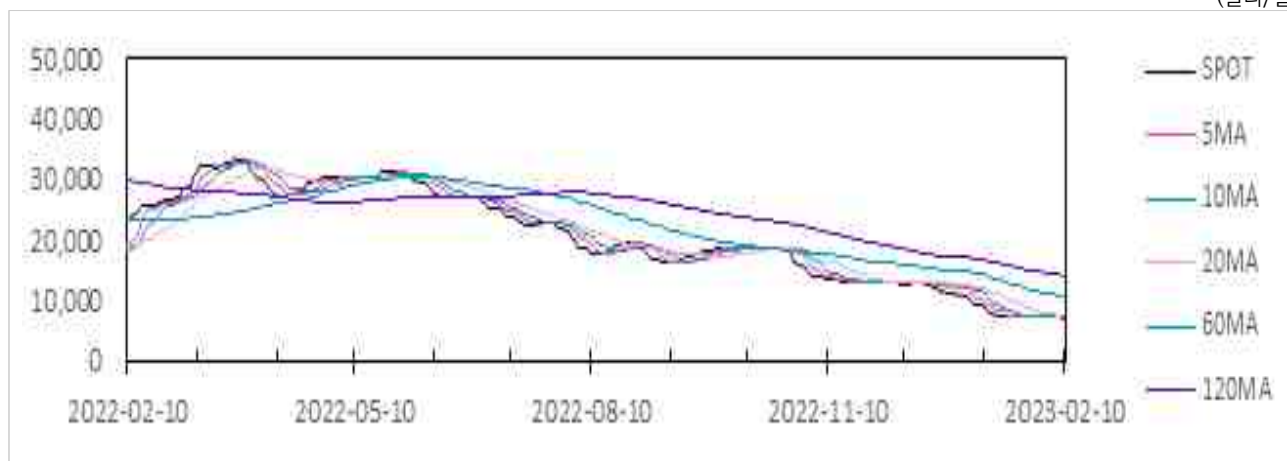
▲ 상승 ▼ 하락 - 혼조



3 수프라막스선-기술분석

이동평균

(달러/일)



자료: Clarkson, Baltic 자료를 활용해 저자 재가공



3. 컨테이너선

김병주 연구원 | bjkim17@kmi.re.kr | 051-797-4628

1 동향분석

I 컨테이너 운임지수(SCFI) : 전주 대비 11.7p 하락한 995.2p를 기록

(운임) 컨테이너 운임 약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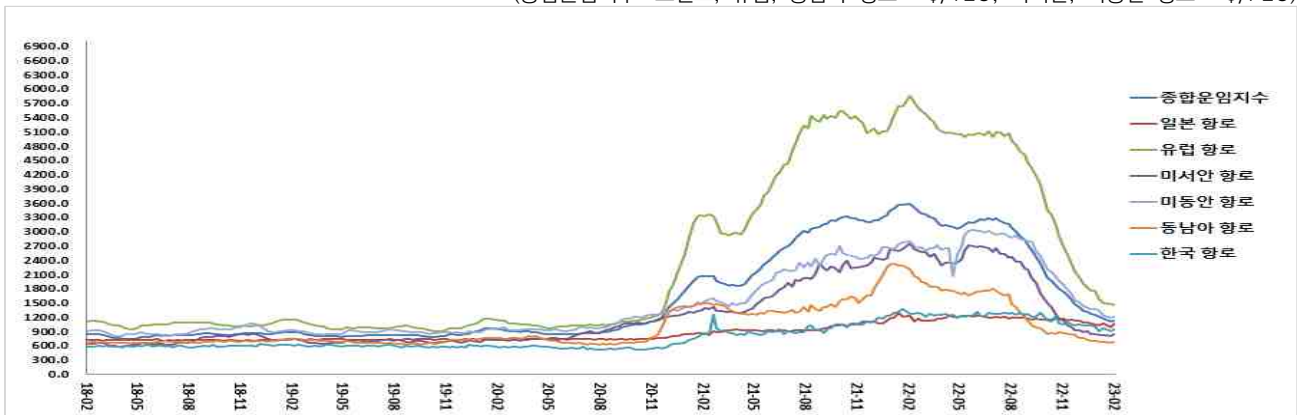
- 컨테이너 운임지수(SCFI)는 주요 원양항로 하락 등으로 1,000p 아래로 떨어져 지난주 대비 11.7p 하락한 995.2p를 기록함

(현황) 컨테이너 운임 약세 지속 전망

- 미국 12개 주요항의 올해 2월 수입 물동량은 금리 인상 및 높은 인플레이션 등의 경제 불확실성이 수요를 억제해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Hackett Associates, National Retail Federation)
- 2023년 글로벌 컨테이너 시장 성장률은 GDP 성장률 둔화로 인해 -2.5~0.5%에 그칠 것으로 전망함(A.P. Moller-Maersk)

컨테이너 운임지수

(종합운임지수: 포인트, 유럽, 동남아 항로 : \$/TEU, 미서안, 미동안 항로 : \$/FEU)



자료: 상하이해운거래소

컨테이너 운임

(종합운임지수: 포인트, 유럽, 한국, 일본 동남아 항로 : \$/TEU, 미서안, 미동안 항로 : \$/FEU)

		2월 2주	전주대비	2023년			2022년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컨테이너선 시장									
운임	종합운임지수	SCFI	995	-12	995	1,061	1,024	1,107	3,410
	유럽항로		925	-36	925	1,050	994	1,047	4,846
	미서안항로		1,293	-30	1,293	1,414	1,370	1,418	5,656
	미동안항로		2,553	-70	2,553	2,845	2,742	3,096	8,514
	한국항로		211	-15	211	238	230	225	321
	일본항로		324	7	317	331	326	281	320
	동남아항로		155	5	150	175	157	189	8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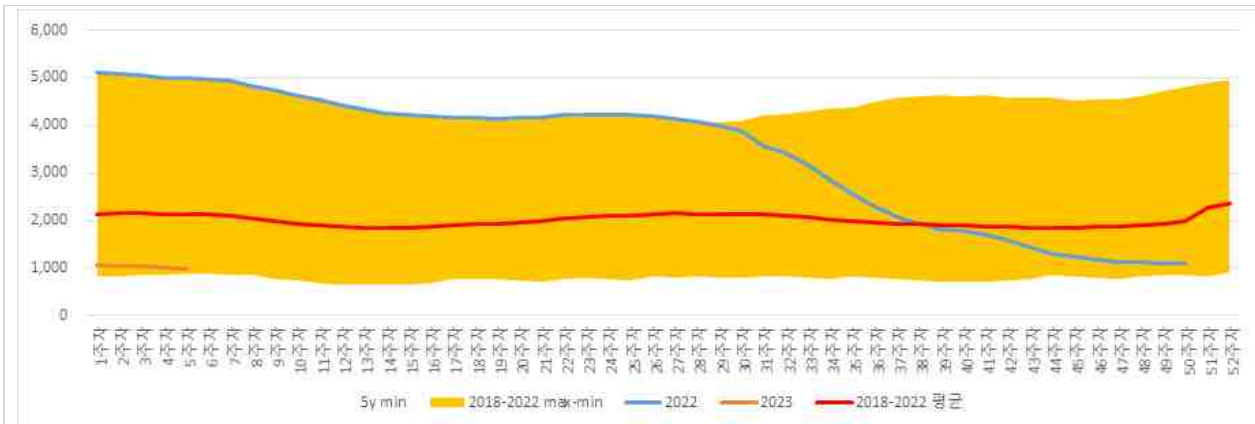
자료: 상하이해운거래소, Clark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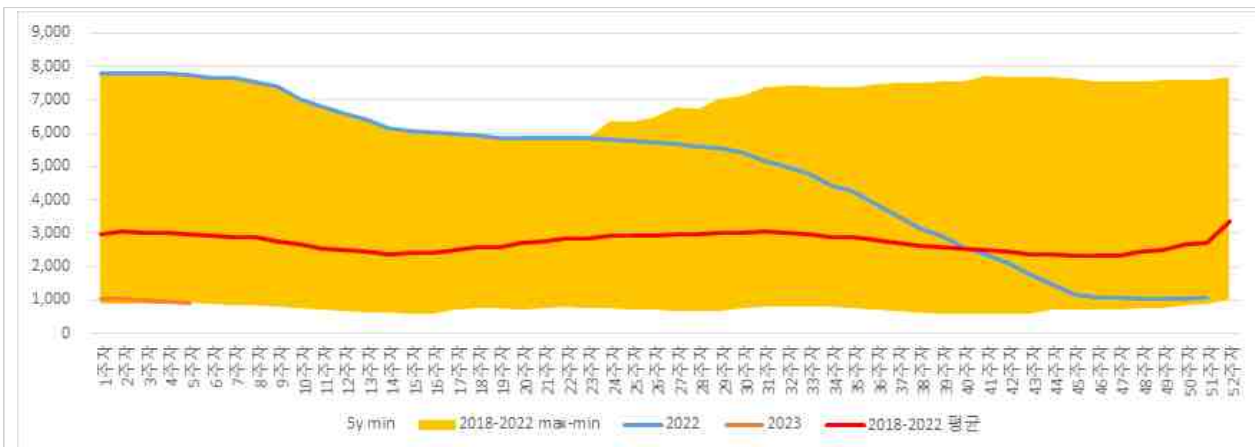
2 운임전망

| 2월 3주('23.2.13~'23.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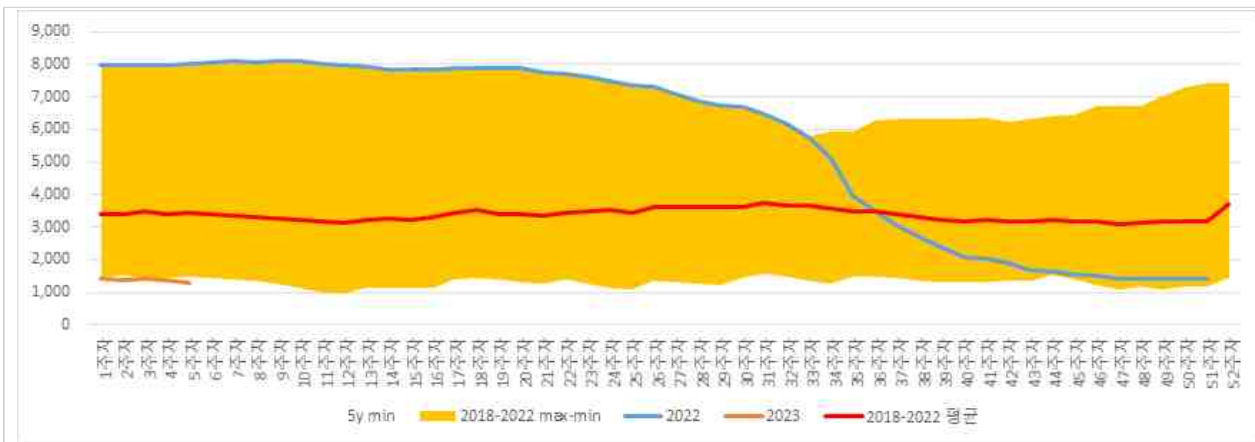
SCFI 지수는 약보합 기록할 것으로 전망



아시아-유럽운임은 약보합 기록할 것으로 전망



아시아-북미운임(서부)은 약보합 기록할 것으로 전망





4. 탱커선

류희영 연구원 | hyryu@kmi.re.kr | 051-797-4643

1 유조선-동향분석

I 유조선 WS(VLCC World Scale) : 전주 대비 2.7p 상승한 52.0 기록

(운임) 전주 대비 대부분의 항로에서 운임지수(WS)가 상승세를 보임

(달러/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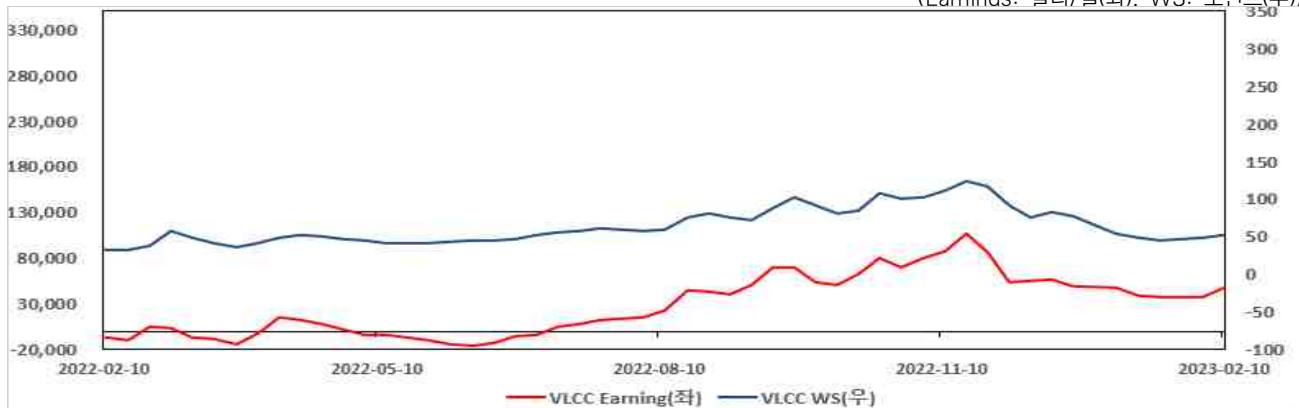
구분	2월 2주(WS)	전주 대비 차이		
중동-중국 항로(TD3C)	52.0	▲	2.7	5.5 %
Ras Tanura(중동) - Loop(미 걸프만) VLCC 280K	37.0	▲	4.0	12.1 %
Ras Tanura(중동) - Ningbo(중국) VLCC 270K	55.0	▲	7.0	14.6 %
Bonny Off(서아프리카) - Ningbo(중국) VLCC 260K	60.0	▲	9.0	17.7 %

(동향) 러시아 원유 감산 선언으로 수급 불균형 우려, 중국 원유 수요 회복세와 물동량 증가로 시장 상승

- 러시아가 3월부터 자체적으로 하루 50만 배럴씩 원유 감산을 선언하면서 원유시장의 수급 차질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리오프닝 효과로 중국의 경기회복세로 원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향후 시장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됨
- 서방국의 제재로 유럽에 수출되던 러시아산 원유는 지난 1월 기준 하루 약 45만 배럴로 약 30% 이상 감소함. 이에 EU 등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줄이면서 아프리카, 중동 등의 국가에서 원유 수입량을 확대하면서 발생한 톤마일 효과가 유조선 시장의 상승 동력이 되고 있음

VLCC 중동-중국(TD3C) 운임 및 지수 :

(Earnings: 달러/일(좌), WS: 포인트(우))



자료: Clarkson

유조선 운임

(운임지수: WS, 수익과 용선료: 달러/일)

		2월 2주	전주대비	2023년			2022년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유조선 시장(현물)									
중동-중국	운임지수	52	3	47	55	49.7	32.4	123.3	63.3
항로(TD3C)	평균 수익	20,561	3,392	16,766	30,486	20,137	24,517	101,230	16,685
VLCC	1년 용선료	39,000	1,000	38,750	39,500	39,125	15,000	47,500	25,644

자료: Clark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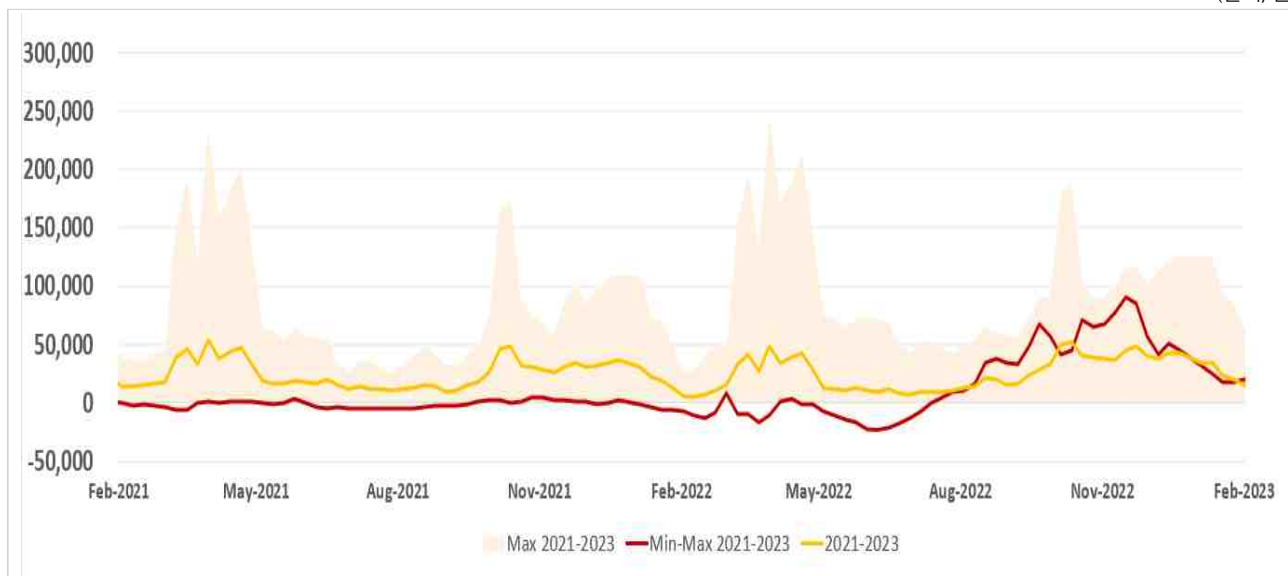


1 유조선-기술분석

수익 추세선은 전주와 유사하게 보험세를 유지함

VLCC 중동-중국(TD3C) TCE(Time Charter Equivalent)

(달러/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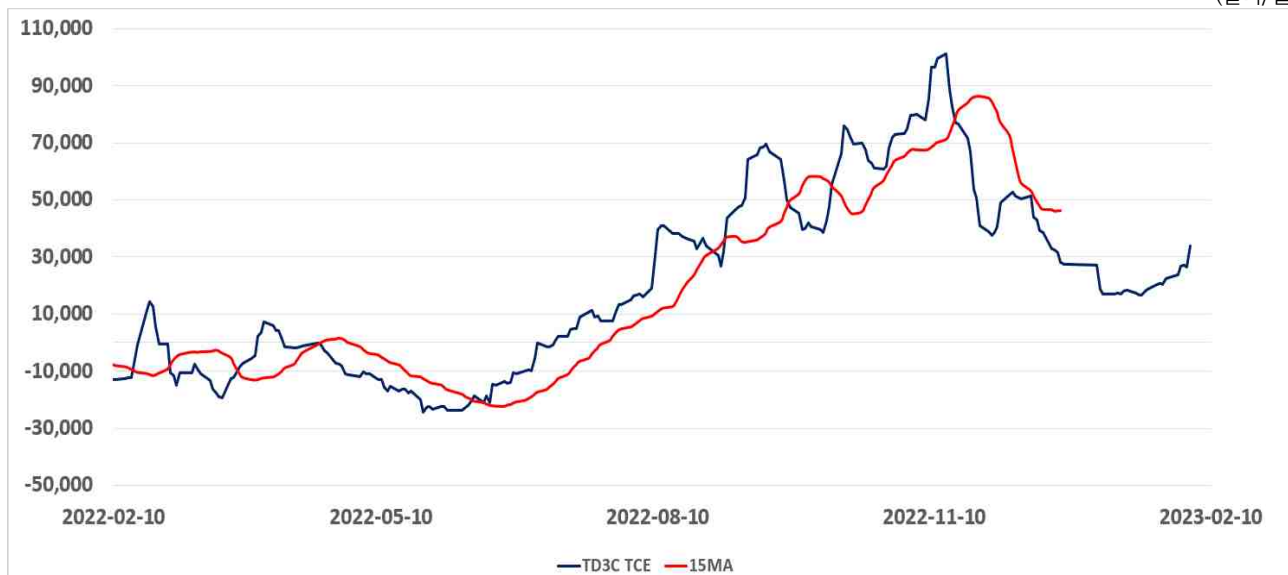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수익 추세선(파란색)은 전주 대비 49% 수준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임

VLCC 중동-중국(TD3C) 이동평균(MA)

(달러/일)



자료: Clarkson



2 석유제품선-동향분석

I 석유제품선 WS(MR World Scale) : 전주 대비 26.9p 상승한 200.2 기록

(운임) 전주 대비 대부분의 항로에서 운임지수(WS)가 상승세를 보임

(달러/톤)

구분	2월 2주(WS)	전주 대비 차이		
인도-극동 항로	200.2	▲	26.9	15.5 %
Ras Tanura(중동) - Chiba(일본) 75K(LR2형)	120.0	▲	20.0	20.0 %
Ras Tanura(중동) - Chiba(일본) 55K(LR1형)	140.0	▲	5.0	3.7 %
Ras Tanura(중동) - Chiba(일본) 35K(MR1형)	170.0	▲	60.0	35.3 %

(동향) 석유제품 가격 상한제 시행으로 인한 공급망 변화, 향후 석유제품 시장 수급 타이틀할 것으로 전망

- 현재 러시아 원유는 인도, 중국 등에서 수입량을 늘려 정제과정을 거친 후 석유제품 형태로 EU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반면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 석유제품은 석유제품 가격 상한제나 수입 제한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아시아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이 같은 흐름이 제품선 시장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함
- 향후 유럽의 러시아 석유제품 제재가 지속되는 경우, 중국의 석유제품 수출 쿼터 확대, 석유제품 수요 둔화 등으로 석유제품 시장의 수급이 더욱 타이틀해 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석유제품선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석유제품선 운임 및 지수

(Earnings: 달러/일(좌), WS: 포인트(우))



자료: Clarkson

석유제품선 운임

(운임지수: WS, 수익과 용선료: 달러/일)

		2월 2주	전주대비	2023			2022년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제품선 시장(현물)									
인도-극동 항로	운임지수	200	27	173	266.3	216.9	120.1	447.1	277.7
	평균 수익	29,660	1,272	21,713	45,231	32,727	6,216	72,180	38,274
MR	1년 용선료	26,000	-	26,000	28,000	27,250	12,357	30,250	20,570

주: 인도-극동(Pacific Basket) 항로는 4일 평균(월-목) 사용. 전주비도 동일기간 평균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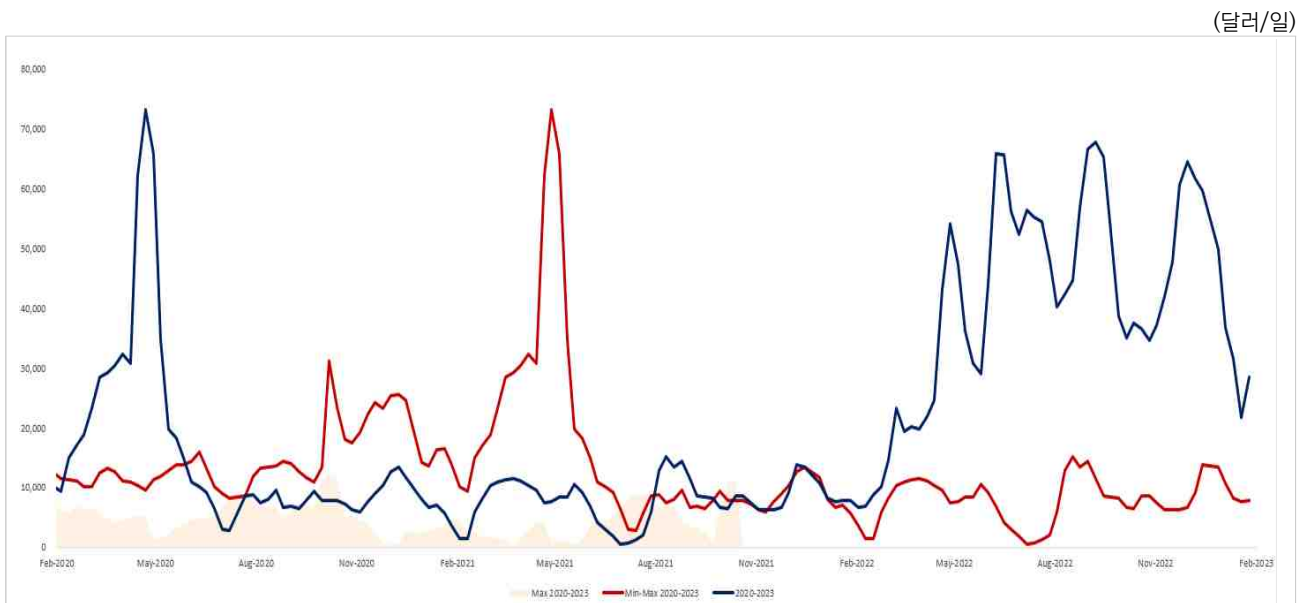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2 석유제품선-기술분석

수익 추세선은 2주 연속 약 30% 상승하며 반등추세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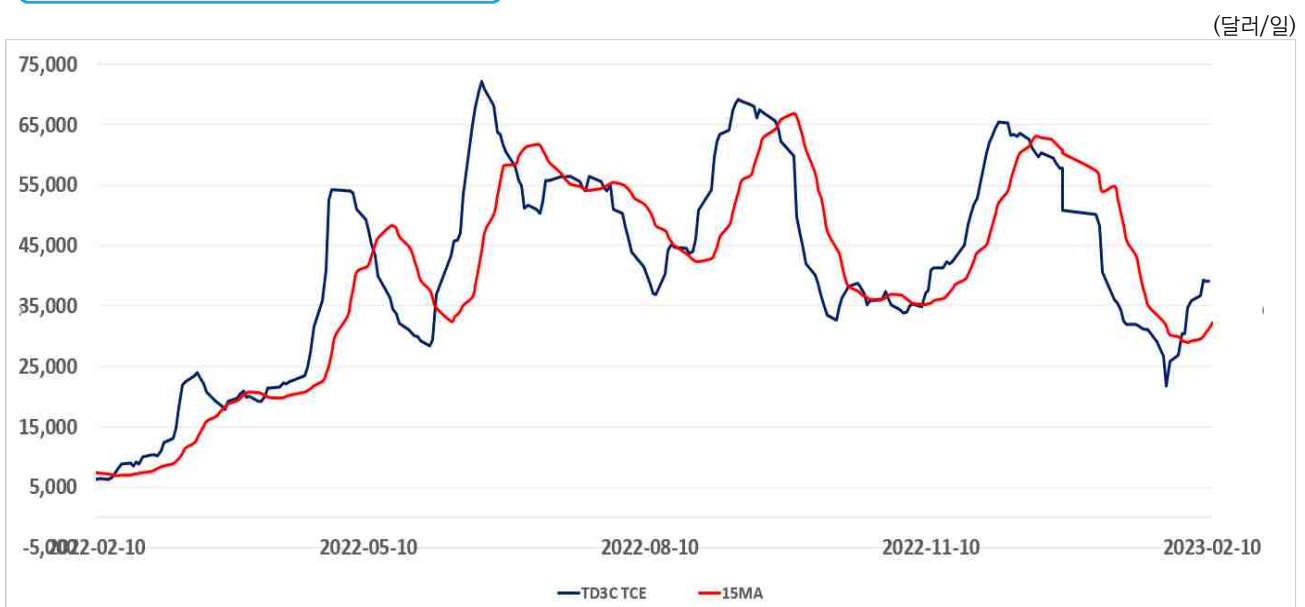
MR 인도-극동(Pacific Basket)



자료: Clarkson

수익 추세선은 1월 말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음

MR 인도-극동(Pacific Basket) 이동평균(MA)



자료: Clarkson



5. 중고선

1 동향분석

■ 건화물선 중고선가 지수는 24.05로 전주와 동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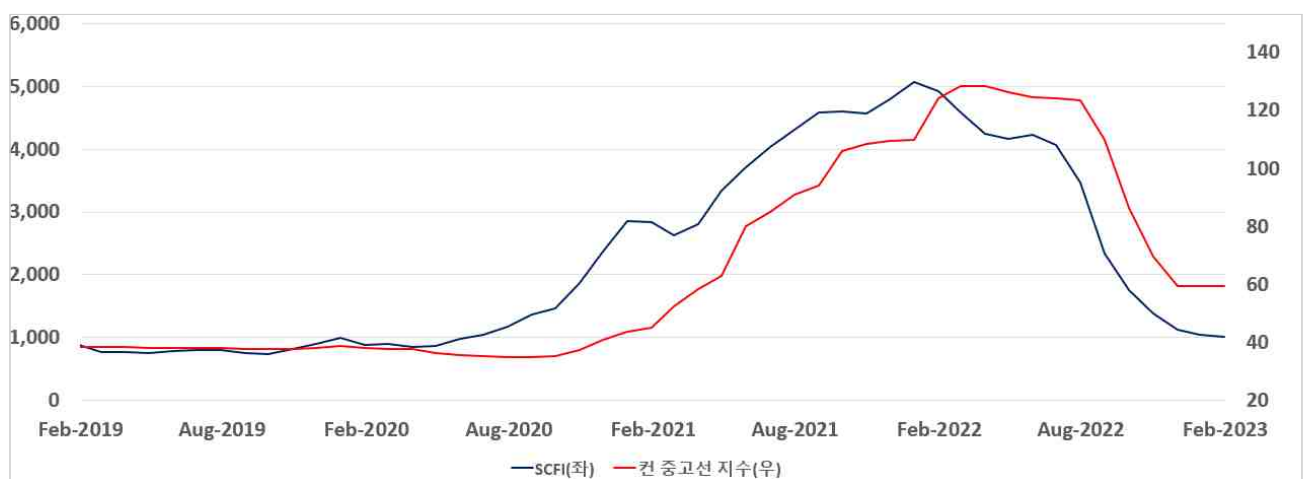
건화물선 운임지수와 중고선 지수



주: 건화물선 중고선지수는 선형별 5년 중고선가를 가중평균하여 계산되었음
자료: Clarkson

■ 컨테이너선 중고선가 지수는 59.5로 전월과 동일함

컨테이너선 운임지수와 중고선 지수



자료: Clarkson



2 거래실적

('23.02.01~'22.02.10)

I 건화물선, 컨테이너선, 탱커선 등 53건의 중고선 거래 발생

선종	선명	건조 년도	선형	단위	매매일자	가격 (백만달러)	매도자	매수자
Offshore	ASL Symphony	2015	4700	DWT	2023-02-10		ASL Marine Holdings	Middle Eastern interests
Bulk	Belle Etoile	2014	28230	DWT	2023-02-10	13	Meiho Kaiun	Undisclosed interests
Bulk	Shanghai Pearl	2011	36266	DWT	2023-02-10	13	Hammonia Reederei	Unknown Vietnamese
Tanker	Super Emerald	2005	50346	DWT	2023-02-10	17	Nav Sea Maritime	Turkish interests
Bulk	Lavieen Rose	2014	33398	DWT	2023-02-08	17.5	Lauritzen Bulk	Greek interests
Offshore	CMM Rapidity	2016	53.25	LOA	2023-02-07		CMM	Undisclosed interests
Offshore	Pacific Finder	2011	68	LOA	2023-02-07		Swire Pac Offshore	Japanese interests
Bulk	Springfield	2020	63670	DWT	2023-02-07	30.7	Union Maritime	Undisclosed interests
Tanker	Hafnia Columbia*	2007	76565	DWT	2023-02-07	22	Hafnia Limited	Asian interests
Tanker	Hafnia Kronborg*	2007	73708	DWT	2023-02-07	22	Hafnia Limited	Asian interests
TankChem	Normanna	1996	10022	DWT	2023-02-06	5.75	Mediterranea di Nav	Turkish interests
TankChem	Markos I	2005	45592	DWT	2023-02-03	17	Iceport Shipping	Undisclosed interests
Container	TS Shanghai*	2019	1096	TEU	2023-02-03	40	TS Lines	Clients of HS Schiffahrts
Container	TS Moji*	2006	1024	TEU	2023-02-03		TS Lines	Clients of HS Schiffahrts
Container	TS Yokohama*	2019	1096	TEU	2023-02-03		TS Lines	Clients of HS Schiffahrts
Bulk	AS Elenia	2011	34421	DWT	2023-02-02	13.3	Wilhelmsen Ahrenkiel	Undisclosed interests



6. 주요 해운지표

(2023.02.10 기준)

주요 해운지표 추이		금주	전주 대비	2월 평균	2023년			2022년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중고선가 (\$ Million)										
건화물선(5년)	Panamax	-	-	-	-	-	-	18.0	18.0	18.0
유조선(5년)	VLCC	100.0	0	100.0	100.0	100.0	100.0	70.0	95.0	80.8
컨테이너선(10년)	Sub-Panamax	20.0	0	20.0	20.0	20.0	20.0	21.0	56.0	45.3

자료: Clarkson

신조선가 (\$ Million)									
건화물선 Panamax	-	-	-	-	-	-	33.5	37.0	35.5
유조선 VLCC	120.0	0	120.0	120.0	120.0	120.0	114.0	120.0	117.7
컨테이너선 Sub-Panamax	42.0	0	42	42.0	42.0	42.0	40.0	43.0	42.3

자료: Clarkson

연료유 (\$/Tonne)											
380 CST	Rotterdam	404.5	7.3	400.9	366.5	404.5	391.3	353.8	688.8	512.3	
	Singapore	409.0	5.8	406.1	377.5	425.8	402.6	373.8	773.5	525.8	
	Korea	464.5	-0.5	464.8	438.5	468.8	455.2	417.5	784.5	580.8	
	Hong Kong	473.0	12.8	466.6	420.8	426.5	443.9	413.8	803.8	556.6	
VLSFO	Rotterdam	594.8	3.8	591.0	528.3	599.8	562.1	526.0	980.0	732.6	
	Singapore	664.3	-22.8	675.6	598.0	695.3	636.3	598.8	1137.8	807.8	
	Hong kong	672.8	-17	681.3	613.5	682.8	642.4	606.0	1189.3	821.9	

자료: Clarkson

주요 원자재가 (\$)										
철광석 (\$/Tonne)	국제價	-	-	-	-	-	-	-	-	-
	중국産	160.4	-0.8	161.2	141.2	153.3	141.8	-	194.5	143.0
연료탄 (\$/Tonne)	국제價	131.0	-0.6	131.6	130.3	132.8	130.7	-	141.3	123.6
	중국産	147.1	-0.7	147.9	146.5	149.2	146.9	-	192.9	142.3
원료탄 (\$/Tonne)	호주산	-	-	-	-	-	-	-	757.5	146.2
	내륙(몽골)	-	-	-	-	-	-	-	-	-
	중국産	-	-	-	-	-	-	-	529.5	118.6
곡물 (센트/부셸)	대두(국제)	1542.5	10.5	1532.0	1,471	1,540	1501	1,344	1,769	1,538.1
	밀(국제)	786.0	29.3	756.8	720	776	743.3	729	1,425.3	905.1

자료: mysteel, CBOT,

세계 경제권역별 교역액 (\$ Million)									
		11월	12월	1월	2022년 합계	2021년 합계	2020년 합계	2019년 합계	
ASEAN	수출	10,546	11,248	10,268	10,268	108,50	89,017	95,086	
	수입	5,745	6,556	7,180	7,180	67,703	54,830	56,186	
NAFTA	수출	9,673	10,385	10,426	10,426	11,914	87,821	89,839	
	수입	7,954	6,969	8,319	8,319	87,464	68,263	73,797	
EU	수출	5,299	5,968	5,414	5,414	63,606	47,870	52,758	
	수입	5,059	6,700	5,023	5,023	65,913	55,517	55,795	
BRICs	수출	17,988	18,160	16,049	16,049	193,174	155,346	163,882	
	수입	17,333	17,218	16,498	16,498	170,649	128,653	131,656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

1.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음
2. 인공지능(AI) 분석을 활용한 예측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개발 중인 분석모델의 예측결과로서 제공되는 내용임. 향후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하여 모델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예정임
3. 인공지능 분석을 포함한 본 보고서의 예측결과는 단순한 '참고용' 자료이므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본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이용자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초래된 손실, 손해 또는 기타 법적 의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이 자료를 수령하는 것으로 정보 이용자는 위에 언급된 모든 책임의 한계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